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0호 [루게 제2750호]

주체 112
(2023)년 5월
13일
토요일
음력 3월 24일

철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도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안고 내려키는 천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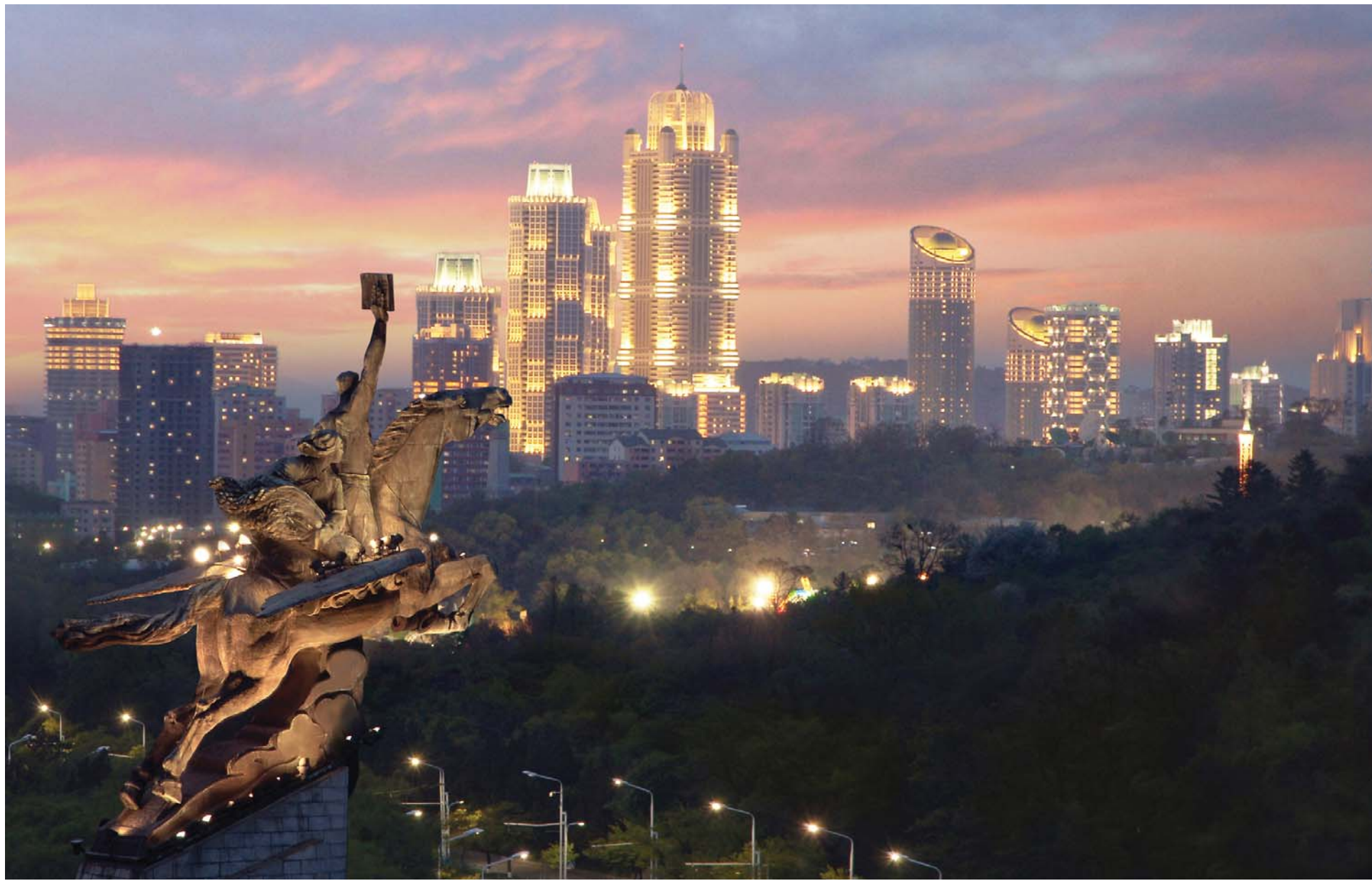
평양의 만수대언덕에는 낮이 나 밤이나 네굽을 안고 하늘 높이 나는 천리마를 형상한 동상이 있다.

비상히 빠른 속도를 상징하는 전설속의 천리마를 몰아가는 기수는 바로 공화국의 근로자들이다.

세상에는 당대의 개별적영웅을 찬미하는 기마상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의 천리마동상처럼 근로인민대중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기마상은 없다.

천리마동상에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으로 가슴씩 찔렀던 천리마시대의 눈부신 모습이 있고 존엄한 도전과 역경속에서도 래일의 승리에 대한 신념과 락관에 넘쳐 험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역센 기상이 비껴있다.

조선의 천리마, 이것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끊임없이 상승비약하며 세계의 창공높이 무섭게 솟구쳐오르는 조선의 약동하는 기상이며 기적과 변혁으로 증된 사회주의조선의 신화의 상징이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온 조선의 천리마

주체50(1961)년 4월 15일 평양의 모란봉기슭에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49돐에 즈음하여 천리마동상제작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온 나라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제작식장에 나오시어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붉은 테프를 꿇으셨었다.

당중앙의 붉은 편지를 추켜든 남성로동자와 풍요한 벼단을 한 아름 안고있는 여성농민을 태우고 구름을 박차며 날아오르는 천리마의 기세찬 모습...

천리마동상을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을 조각한 동무들은 다 영웅들이라고, 이 천리마동상은 조각도 잘하였지만 우리의 위력을 시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시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천리마가 뭐냐고 하는데 이제야 바로 이거다라고 말할수 있게 되었다고 교시하시었다.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기운차게 나는 조선의 천리마.

전설속의 천리마를 불러내어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 조선의 상징으로 되게 해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가 있는 다음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날이 한발자국을 걸으면 열발자국을 걷고 날이 열발자국을 뛰면 백발자국을 뛰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제를 계획보다 1만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수 있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강선의 로동계급은 공청능력, 기술신비주의를 라파하고 다음해에 6만능력의 분피암연기에서 12만의 강편을 뽑아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곳에서 타고온 천리마대교조의 불길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으로 거세차게 라번져졌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들은 당시로서는 발전된 몇개의 공업 국가들만이 만들수 있던 프락트르를 30여일만에, 자동차를 40일만에, 전기기관차를 1년동안에 만들어냈으며 8m라닝반과 3000t프레스, 대형양수기와 굴착기, 불도젤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세상을 놀래웠다. 이러한 속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단 한해사이에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3~4년이 걸려야 할수 있는 해추-하성사이의 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해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졌다.

평양에 와서 1주일간 묵어간 한 외국인이 도착한 날 살림집 1층 벽체조립장면을 사진찍었는데 귀국할 때에는 7층조립까지 끝난 모습을 찍어가지고 간것도 천리마대교조시기에 있는 일이었다. 이듬해의 트랙트르를 만든어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사람들이 보도할 때 잘못하여 실지 생산량보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쳐서 내보냈기 아닌가 하여 직접 공장까지 찾아와 사실을 확인한 일화도 바로 천리마대교조시기에 생겨난것이였다.

정말이지 기적이 기적을 낳고 신화가 신화를 낳고 전설이 전설을 낳던 시대였다. 바로 그 전설속의 천리마, 기적의 천리마우에 인민을 태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초기에 천리마동상우에 개별적인물의 모습을 형상하려고 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각가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나는 1949년에 레닌그라드에 가서 뵈프르데제의 기마상을 보

았소. 그는 1703년에 그곳 전역에다 도시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건설을 직접 지휘한 황제요. 사람들은 청동말을 탄 거인의 조각상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이 옛날의 그 유명한 짜리로구나 하고 생각하지.

우리가 오늘 이 천리마에 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먼 후대들은 말우에 앉은 사람이 당대를 대표하는 어떤 개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할거요. 그들은 아마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했으니 이걸 그 사람의 동상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지금이야 인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걸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세우는 기마상이요. 인민의 모습을 사람답게, 천리마의 주인들이 어떤 개별적영웅이 아니라 인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시오.

바로 이렇게 세기의 상상봉에 올라선 공화국의 인민이다. 전설속의 천리마를 공화국의 현실로 불려오시고도 오히려 자신보다 인민을 내세워주고싶은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진정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이런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 있어 본적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인민을 낳는다.

하늘이 낸 철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있었기에 지지리도 천대 받고 억눌려살던 조선인민은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데 이어 세기 《최강》을 떠드는 미제를 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한 영웅인민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전후의 어려운 속에서도 계획으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불과 14년동안에 일떠세운 창조와 건설의 거인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정치가, 위인중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안광, 비범출중한 담력과 배짱, 천하를 품으시는 바다같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인덕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녀보지 못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은 자신께서 지니신 그 탁월하고 비범무쌍한 모 든것을 인민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높이는 숭결로, 열정적인 심장의 박동으로, 뿜어버지는 붉은 피로, 백두의 웅지와도 같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로 안겨 주시었다. 그래서 인민은 령도자를 따르며 그리도 슬기롭고 강인하고 아름답고 굳세였으며 허리를 조이면서도 휘황한 미래를 내다보는 불굴의 락관주의자들, 자신보다 남을, 하나보다 전체를, 가정보다 조국을 먼저 아는 그렇게 참되고 순결하고 깨끗한 인간들로 새로이 탄생할수 있었던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에 찍어가신 발자취는 강선과 황천, 김책과 통성, 덕천과 기양, 락원으로 이어지며 무수한 기적들을 낳아왔고 그이의 모든 귀중한 가르치심 하나하나가 그대로 인민의 투쟁의 기치, 성공의 열쇠, 휘황한 미래를 밝히는 등대로 되였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는 인간을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날의 다정하신 말씀은 인간개조의 선구자들을 무수히 키워냈고 혁명을 하자면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힘과 고무를 주시던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수천수만의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을 이 땅우에 탄생 시키었다.

하기에 현대기계공업과 전기공업의 정수를 이룬다는 전기기관차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기적을 안아온 한 체형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이상스러운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하면 산악같이 보이던것도 주먹만큼 되어보이고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낼수 있게 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인민은 자랐고 장엄한 령도의 새시대는 탄생하였다. 이 땅우에 사회적변혁과 승리만을 안아온 천리마의 정신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세기와 년대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주었다. 조국이 어려운 시련에 처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몸소 자강당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와 전후복구 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강선을 찾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행

군을 하는 오늘에 와서는 강계시를 내세우자고 한다시며 자강도의 로동계급이 혁명대교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새로운 천리마정신-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자강땅에서 타고온 새로운 천리마대교조의 봉화는 라로 남에서, 락원에서, 강선에서, 회천에서 련이어 타올랐으며 이러한 혁명대교조의 불바람과 더불어 이 땅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킨 기적과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되게 되었다.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된 온 나라의 토지, 활성화의 기운과 현대화의 동음으로 들끓는 공장, 기업소들, 전국각지에서 솟구쳐오르는 중소형발전소들, 곳곳에 뻗어나가는 자연호름식물길들, 광활한 우주를 향해 날아오른 공화국의 첫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1》호 등 고귀한 창조물들과 성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공화국인민이 최악의 시련과 고난을 박차고 얼마나 힘차게 용진해왔는가를 잘 말해주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어 공화국의 인민은 년대와 세기를 이으며 기적과 비약, 번영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영원한으시고 혁명대교조를 일으키도록 전국에 내세우신것처럼 강행

는 만고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지킬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인 삶도 지킬수 없으며 이 땅의 풍요롭고 소중한 그 모든것을 빼앗기게 된다는것이다.

병진의 불우회를 터친 잊지 못할 3월의 그날로부터 지난 10년간 공화국의 절대적힘은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비상히 강화되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이 제시된지 불과 3년만에 첫 수소탄시험에서

왔다. 주체조선의 전진과 발전 그자체가 기적적이고 전설인 지금 이 땅우에는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지고있으며 공화국의 국력은 또 얼마나 급상승하고있는가. 그 과감한 전진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력앞에서 적대세력들은 기절초풍하고 공화국인민은 끝없는 희열과 자부심에 넘쳐있다. 국력중의 국력은 군력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며 래일에 반드시 변하지 않

의 완전성공을 이룩하고 4년만에 는 국방공업발전의 큰몫을 열어 제긴 《3.18혁명》이 일어났으며 그로부터 몇달후에는 《7.4혁명》과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이 련이어 이룩되었다.

이렇게 너무도 짧은 기간에 국가행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한 공화국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절대적힘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초음속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실험잠수함발사탄도탄, 철도기동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초대형방사포, 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핵무인수중공격정...

오늘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서있다.

멈춤도 한계도 없는, 날이 갈수록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는 조선의 눈부신 발전속도는 국가사업전반으로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고있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살공세와 겹쳐드는 난관속에서도 공화국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확신성있게 열어가는 등 세월을 주름잡으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공화국인민들자체가 경탄속에 안아보는 시대의 기념비들은 그 얼마인가. 은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력거리, 미배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송화거리, 경루동,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들, 삼지연시를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서는 사회주의신경마을들, 종평과 련포의 대규모온실농장 등이 땅에 솟아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사회주의위력을 과시하는 변혁적실체들은 새로운 천리마속도로 부흥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성과들과 기적들을 최고의 속도로!

과연 조선은 무슨 힘으로 이런 기적과 전설들을 세기를 이어가며 창조할수 있는가. 남들같은 열백년도 더 주저앉을 공화국인민을 천리마시대의 계승자들로 키우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전군길에 공화국인민들을 내세워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구상을 년대별로 실현해나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하면서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천만인의 심장마다 천리마시대의 정신과 넋을 심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 땅에서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가 열리었다. 철세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훌륭한 인민이 있어 조선의 천리마는 공산주의의 찬란한 래일을 향해 온 세상을 끌어모으며 더 높고, 더 빨리, 더 용기백배해 날고있다. 본사기자 김감철